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2..75.189

〈일반논문〉

唐 憲宗의 藩鎭改革과 成德節度使 王承宗

정 병 준 *

〈목차〉

Ⅰ. 머리말
Ⅱ. 왕승종의 成德 승계와 헌종의 토벌
Ⅲ. 헌종의 淮西 토벌 중 제2차 왕승종 토벌
Ⅳ. 平盧 李師道의 패망과 왕승종의 태도
Ⅴ. 맺음말

[국문초록]

당 헌종은 번진을 개혁하여 조정의 권위를 크게 회복한 '元和中興'의 군주이며 그 성공의 이유로 번진 개혁과정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개혁과정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실책이 있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덕의 왕승종에 대한 두 차례 토벌이다.

그 첫 번째 토벌은 왕승종이 번진을 승계한 후 헌종의 명을 무시하자 淮西를 먼저 토벌하자는 논자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원화 4년(809) 10월 행해졌다. 하지만 성덕은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듬해 7월 토벌을 그만두었다. 두 번째 토벌은 새로 회서를 승계한 오원제를 토벌하던 중인 원화 10년(815) 7월 개시되었다. 이번에는 왕승종이 오원제 토벌을 방해하기 위해 재상을 암살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논자들의 우려대로 '할거 번진' 두 개를 동시에 토벌하는 것은 역시 무리였고 얼마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후 왕승종 토벌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오원제 토벌전은 성과를 거두어 같은 해인 원화 12년(817) 10월 평정하였다.

오원제가 평정되자 반역 번진들이 차례로 귀순하였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꾼 평로의 이사도에 대한 토벌전이 전개되자 왕승종은 상황을 관망하였다. 이사도가 패망한 뒤 왕승종은 완전 굴복하였고 얼마 후 사망하였다.

□ 주제어
당 헌종, 성덕, 왕승종, 오원제, 이사도

I. 머리말

당 헌종은 반역 번진을 하나씩 토벌하여 조정의 권위를 크게 회복한 이른바 '元和中興'의 군주로 이름이 높다. 이는 앞선 德宗의 번진개혁이 큰 실패로 끝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구당서』 권15, 헌종본기의 贊에서는 "[덕종] 貞元 연간에 [도적들을] 제어하지 못해 도적 무리가 오만무례하였다. 헌종이 위무를 떨쳐 도적들을 평정하였다. …… 원화의 정치는 칭송의 소리를 듣는다"[1] 라고 한다.

그러면서 헌종의 번진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찰스 피터슨에 의하면 "헌종의 대번진정책은 분명히 완벽하게 구상되었고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해야 한다"[2] 라고 하고 필자도

1)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卷末의 贊, "貞元失馭, 羣盜箕踞. 章武赫斯, 削平嘯聚. 我有宰衡, 耀德觀兵. 元和之政, 聞于頌聲"(472쪽).
2)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 헌종과 번진」,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

비슷한 관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3] 하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실책이 있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4] 그러한 실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덕절도사 왕승종에 대한 토벌이다. 즉 夏綏·西川·浙西·淮西·平盧는 모두 한 차례의 토벌로 평정하였지만, 성덕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토벌하였음에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5] 당시 조정에서는 성덕에 대한 토벌을 미루자는 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종이 토벌을 밀어붙이다가 자칫 번진개혁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왕승종에 대한 두 차례 토벌의 실패는 당시 헌종의 번진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여준다. 이 글은 왕승종에 대한 두 차례 토벌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헌종이 추진한 번진정책의 가변성과 그에 대한 여러 번진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해 보려는 것이다.[6]

Ⅱ. 왕승종의 成德 승계와 헌종의 토벌

헌종은 永貞 원년(805) 8월 즉위한 후 반역 번진들을 차례로 토벌하여 성공을 거두었다.[7] 하지만 원화 4년(809) 3월 성덕절도사 王士眞이 죽고

당사학회 역,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9, 257쪽.

3)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193~195쪽 등.

4) 李懷生, 「試論唐憲宗削藩戰爭的策略失誤」, 『晉陽學刊』 1991-3, 41~44쪽.

5) 秦中亮·陳勇, 「從兩次興兵成德看元和政治規範的形成」, 『厦文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4, 127쪽.

6) 지금까지 헌종과 왕승종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는 있지만(본 논문에서 인용), 양자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당 헌종의 번진정책을 검토한 연구는 나와 있지 않다.

7)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장남인 副大使 왕승종이 스스로 留後를 칭하면서[8]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즉 그 동안의 번진 토벌은 모두 새로 반역을 꾀한 번진에 대한 것이었지만, 성덕은 조정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藩帥를 계승해 온 이른바 '割據藩鎭'이었기 때문이다.

왕승종이 성덕을 승계할 당시 할거 번진인 河北三鎭 등에서는 스스로 副大使라는 관직을 두어 적장자를 임명한 후 藩帥가 죽으면 그가 번진을 계승하는 관행이 있었다.[9] 왕승종은 왕사진이 여러 차례 상주하여 鎭州大都督府右司馬·知州事·御史大夫·充都知兵馬事·副大使가 되었다가 마침내 번진을 계승하였던 것이다.[10] 그러자 헌종은 하북 번진들의 세습 관행을 바꾸고자 하였고 이 기회에 조정에서 절도사를 제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재상 裴垍[11]가 말하길

> [평로의] 李納은 跋扈하여 공손하지 않았고 [성덕의] 王武俊은 국가에 공을 세웠지만, 폐하께서는 앞서 李師道에게 세습을 허락하고 지금 지금 왕승종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저지하고 권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논의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어 황제

99~100쪽;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吳少陽의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64~69쪽 등.

8)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4년 3월 조, 210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3월 조, 7657쪽.

9) 『구당서』 권124, 李師道傳, 3541쪽;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8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10)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8쪽.

11)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3년 9월 조, "以戶部侍郎裴垍爲中書侍郎·同平章事"(426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9월 조, 7654쪽.

가 여러 學士들에게 의견을 묻자 李絳 등이 대답하여 말하길

> 하북이 조정의 명[聲敎]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누가 분격하고 탄식하지 않겠는가마는 지금 그것을 취하는 것은 혹 능히 이룰 수 없을까 우려된다. 성덕은 왕문준이 [建中 3년부터 번진을 다스린] 이래 父子가 서로 계승한 지 40여 년이 되었으므로 人情이 익숙하여 그르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물며 왕승종은 이미 군사의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면 조서를 받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范陽·魏博·易定·淄靑은 토지를 서로 계승하여 성덕과 同體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성덕에 사람이 제수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필시 속으로 불안해하여 몰래 서로 무리를 만들어 도울 것이고 비록 [易定(義武)節度使] [張]茂昭[12] 가 [왕승종을 대신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고 해도 또한 진실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지금 國家가 사람을 제수하여 왕승종을 대신하면 그와 인접한 번진은 성공하도록 권하지만, 나아가도 물러나도 모두 이익이 있다. 만약 제수한 사람이 진입하면 그는 자신의 공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詔令이 행해지지 못하면 그는 몰래 서로 交結할 것이니 나라의 체통[國統]상 어찌 갑자기 멈출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군대를 일으켜 四面에서 공격하면 그 將帥에게 官爵을 더해주고 사졸에게는 衣糧을 지급하지만 무기를 어루만지며 소극적으로 적과 싸우고 앉아서 승패를 지켜보니 수고로움과 비용의 병폐가 모두 국가에게 돌아온다. [호삼성 주: 大曆·貞元 이래 用兵의 폐단이 바로 이와 같았다] 지금 江淮에 수해가 들어 公私가 모두 피폐하여 군대 동원을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左神策軍護軍中尉 吐突承璀는 황제의 마음에 영합하고 또 재상 배기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왕승종

12)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1, 義武, 中華書局, 1980, 502~504쪽.

을 토벌하겠다고 하였고, 宗正少卿 李拭이 이에 부회하였다. 또 전 해에 부친상으로 형식상 관직을 내려놓았던 昭義節度使 盧從史가 같은 달(4월) 다시 관직을 제수받을 마음으로 스스로 왕승종을 토벌하겠다고 하였다.[13] 하지만 헌종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사이 왕승종은 번진 계승을 조정에 계속 청하였지만, 헌종은 몇 달 동안 상황을 살피면서 응답하지 않았다.[14] 이는 앞서 새로 반란을 일으킨 번진에 대해 바로 토벌을 명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마침내 7월 헌종은 나름의 계책을 마련하여 은밀히 여러 學士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 지금 왕승종을 성덕 유후에 임명하면서 德·棣 2주를 떼어 하나의 번진으로 만들어 그 세력을 분리시키고, 또 왕승종에게 양세[二稅]를 보내게 하고 官吏를 청하게 하길 모두 이사도와 같게 하면 어떻겠는가?[15]

여기서 이사도의 사례란 이사도가 원화 원년(806) 윤6월 평로를 계승한 후 8월 헌종과의 타협을 위해 兩稅를 바치고 鹽法을 지키며 官員을 임명해 주실 청하겠다고 하자 헌종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번진을 잇게 한 것을 말한다.[16] 하지만 그 후 이사도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17] 그것을 사례로 든 것이 흥미롭다.[18] 어쨌든 헌종의 물음에 대

13)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4월 조, 7659~7660쪽.
14)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8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15)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3쪽.
16) 『구당서』 권124, 이사도전, 3538쪽; 『신당서』 권213, 이사도전, 5992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8월 조, 7635쪽.
17) 정병준, 「唐 憲宗 前期의 藩鎭政策과 平盧節度使 李師道」, 『중국사연구』 137, 2022, 112쪽.
18) 日野開三郎은 "왕승종이 세습을 청하자 헌종도 아직 이를 거부할 자신이 없었기

해 이강 등이 덕주와 체주는 오랫동안 성덕에 예속되어 반감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웃 번진들이 훗날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 서로 뭉쳐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세 상공과 관리 임명은 조정의 弔祭使가 성덕으로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왕승종을 타일러 이사도의 경우처럼 스스로 제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9]

때마침 같은 달(7월) 幽州의 劉濟와 魏博의 田季安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헌종은 이강 등에게 대응책을 물었다. 즉

> 지금 유제와 전계안이 모두 병에 걸렸는데, 만약 그들이 죽을 때 가히 성덕과 같이 그 아들에게 모두 제수한다면 언제 평정하겠는가. 논자들이 모두 "마땅히 이 틈을 이용하여 교체하고 명을 받들지 않으면 병사를 내어 토벌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강이 대답하길

> 신하들은 폐하께서 서쪽으로 蜀을 취하고 동쪽으로 吳를 취한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첨하고 성급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계책을 바쳐 河北을 개통시키길 권하는데, 국가를 위해 깊이 도모하고 멀리 생각한 것이 아니다. 폐하께서도 또한 이전에 쉽게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다. 신 등이 주야로 생각하건대 하북의 형세는 두 곳과 다르다. 왜인가? 西川과 浙西는 모두 反側의 땅이 아니고 사방 이웃이 모두 국가의 팔뚝과 손가락 같은 신하들이었다. 劉闢과 李錡는 홀로 미치광이 모의를 하였고 그 부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 성덕은 그렇지 않다. 안으로

때문에 이를 승인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역에서 덕·체 2주를 회수하여 별개로 번진을 두어 ……"(『支那中世の軍閥』, 100~101쪽)라고 한다.

19)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3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 는 아교처럼 붙어 굳어진지 세월이 오래되었고 밖으로는 넝쿨이 이어지듯 세력이 넓으며 그 將士와 백성은 그 누대에 걸쳐 보살펴준 은혜를 마음에 품고 君臣·逆順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 깨우쳐 주어도 따르지 않고 위엄을 보여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조정의 수치가 될 것이다. 또 이웃한 번진들은 평시에 혹 서로 시기하고 원한을 가지면서도 [번수] 교체를 들으면 반드시 합쳐 한마음이 될 것이다. …… 만약 나머지 번진이 혹 서로 표리를 이루어 병사를 연합하고 화란을 만들면 재물이 다하고 힘이 고갈될 것인데, 西戎과 北狄이 그 틈을 이용하여 엿본다면 그 우환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유제와 전계안은 왕승종과 정황[事體]이 다르지 않다. …… 태평의 대업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폐하께서 이를 살펴 처리하시길 원한다.

라고 하여[20] 할거 번진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설명하면서 때를 기다리길 청하였다. 실제로 할거 번진들이 연대하면 큰 세력이 된다는 것은 덕종 시기에 할거 번진들이 '四王의 난'(혹은 '五王의 난')[21]을 일으켜 황제를 굴복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달(7월) 공교롭게 淮西의 吳少誠이 위독해지자 이강 등이 "회서의 事體는 하북과 달리 사방이 모두 국가의 주현이고 賊과 인접하지 않아 黨援이 서로 도울 수 없다. 조정이 번수를 임명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가히 토벌을 의논할 수 있다. 신은 이루기 어려운 성덕에 대한 계책을 버리고 성공하기 쉬운 회서에 대한 모책을 세우길 원한다. …… 남과 북 양쪽으로 군사를 일으키기에는 財力의 쓰임이 부족하다. ……"[22] 라고 하여 성덕을 미루고 회서를 토벌하길 청하였다.

---

20)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3~7664쪽.
21)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性格」, 『중국사연구』 126, 2020, 81쪽 참조.
22)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4쪽.

왕승종은 오랫동안 조정의 명이 내려오지 않자 자못 두려워하며 누차 表를 올려 스스로를 변호하였다.[23] 그러자 다음 달(8월) 헌종이 京兆小尹 裴武를 성덕으로 보내 위로의 말을 전하였는데, 왕승종이 공손하게 조서를 받들며 덕·체 2주를 바치길 청하였다.[24] 이에 9월 헌종이 왕승종을 左金吾衛大將軍同正·鎭州大都督府長史·御史大夫·成德節度使·恒冀深趙觀察使 등에 제수하면서 동시에 德州刺史 薛昌朝를 德州刺史·御史大夫·保信軍節度·德棣觀察使 등에 임명하여[25] 번진을 두 개로 나누었다.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에 의하면

> 설창조는 [薛]嵩의 아들로 왕승종과 본래 姻家 사이였다. 황제가 그것을 이용하여 親將을 이간시키고자 하여 임명한 것이다(5956쪽).

라고 하고,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에서는 "설창조는 故昭義節度使 설숭의 아들로 王氏와 혼인하고 성덕군에 入仕하였기 때문에 자사가 되었다. 왕승종이 2주를 바치자 조정은 별도로 將帥를 파견하지 않고 잠시 그 親將을 제수하였던 것이다"(3879쪽)라고 한다. 하지만 왕승종은 조서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수백의 기병을 급히 덕주로 보내 설창조를 잡아 鎭州로 데려가 구금하였다.[26] 같은 달(9월) 헌종은 棣州刺史 田渙을 本州團練·守捉使[27]로 삼아 분열을 유도하고 또 中使를 보내 설창조를 번진

23)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旣而承宗久未得朝命, 頗懼, 累表自訴"(7664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7쪽.
24)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9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25)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9월 조, 428쪽;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9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9월 조, 7665쪽.
26)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9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쪽;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9월 조, 428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9월 조, 7665쪽.
27)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에는 "二州團練守捉使"(5956쪽)라고 적혀 있다.

으로 돌려보내게 하였지만. 왕승종은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28] 앞서 왕승종이 두려워하고 또 공손한 태도로 덕·체 2주를 바치길 청한 것은 임명장을 받기 위한 가식적 행동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자 헌종은 노하여 이강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29] 10월 제서를 내려 왕승종의 관작을 삭탈하고 좌신책호군중위 吐突承璀를 左右神策·河中·河陽·浙西·宣歙等道行營兵馬使·招討處置等使에 임명하여 왕승종을 토벌하게 하였다.[30] 해당 조서를 보면 "왕승종은 공손한 척 해도 간사한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듯해도 화근을 길러 지위를 얻은 후 裴武를 업신여기고 명을 받는 중에 설창조를 가두었다. …… 더구나 表疏 안에 언사가 어그러지고 오만한 것이 매우 심하다"[31] 라고 하므로 왕승종이 황제를 심히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할거 번진의 대체적 위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왕승종 토벌전이 진행되던 중인 같은 해(809) 11월 오소성이 죽고 吳少陽이 淮西留後를 청하였으나 헌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듬해(810) 3월 유후에 임명해 주었다.[32] 그리고 이듬해(811) 정월 오소양은 정식 회서절도사에 임명된다.

왕승종의 토벌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구당서』권142, 왕승종전에

---

28)『구당서』권142, 왕승종전, 3879쪽.

29) 秦中亮·陳勇,「從兩次興兵成德看元和政治規範的形成」, 131쪽에서는 權德輿·裴垍·李絳·白居易가 사왕의 난을 은근히 환기시키며 왕승종 토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며 관련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

30)『구당서』권142, 왕승종전, 3879쪽;『신당서』권211, 왕승종전, 5956쪽;『신당서』권7, 헌종본기, 원화 4년 10월 조, 211쪽;『자치통감』권238, 원화 4년 10월 조, 7666~7667쪽.

31)『唐大詔令集』권119, 討伐上,「削奪王承宗官爵詔」, 商務印書館, 630쪽;『구당서』권142, 왕승종전, 3879쪽.

32) 정병준,「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70~71쪽.

> 신책병마사 趙萬敵은 [이전에] 왕무준의 騎將으로 날래고 사나운 것으로 燕·趙에 알려졌는데, 나아가 토벌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갖추어 말하였다. 이에 토돌승최가 병권을 얻자 조만적과 함께 출정하였다. 하지만 토돌승최가 行營에 이르렀으나 威令을 떨치지 못하고 금군이 누차 패배하였다. 都將 酈定進은 앞서 유벽을 사로잡는 데 공이 있어 驍將이라고 불렸으나 賊에게 사로잡혔다. 다만 范陽節度使 劉濟와 易定節度使 張茂昭가 힘써 충성을 바쳐 적과 싸워 누차 이겼다(3879~3880쪽).

라고 한다. 여기서 유제와 장무소가 토벌에 참전한 것이 주목되지만, 적극적인 참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중 성과라고 한다면 원화 5년(810) 4월 불온한 태도를 보이던 소의절도사 노종사를 토돌승최에게 명해 사로잡은 것이다. 노종사는 澤·潞·邢·洺·磁 5주를 다스리면서 겉으로는 토벌에 동참하면서도 속으로는 왕승종과 내통하였다.[33]

그러자 같은 해(810) 7월 왕승종은 헌종에게 表를 올려 허물을 노종사에게 돌리며 常賦를 상공하고 官吏를 제수해 주길 청하겠다고 하였고, 이사도 등도 자주 표를 올려 왕승종을 용서하길 청하였다.[34] 이에 같은 달(7월) 헌종은 제서를 내려 왕승종을 성덕절도사에 임명하면서 덕·체 2주를 다시 돌려주었다.[35] 11월 왕승종이 설창조를 조정으로 보내니 헌종이 右武衛將軍에 제수하였다.[36] 이후 왕승종의 태도에 대해서는 『구당서』

---

33) 『太平廣記』 권346, 李湘, "盧從史以左僕射爲澤潞節度使. 坐與鎭州王承宗通謀貶驩州. 賜死於康州"(中華書局, 2739~2740쪽); 『신당서』 권141, 노종사전, "貶驩州司馬, 賜死"(4661쪽). 정병준, 「韓愈의 '平淮西碑' 검토」, 『중국사연구』 139, 2022, 8쪽 참조.

34)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0쪽; 『자치통감』권238, 원화 5년 7월 조,7677쪽.

35) 『자치통감』권238, 원화 5년 7월 조, "… 悉罷諸道行營將士, 共賜布帛二十八萬端匹"(7677쪽);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時朝廷以承璀宿師無功, 國威日沮, 頗憂, 會承宗使至, 宰臣商量, 請行赦宥, 乃全以六郡付之"(3880쪽).

권142, 왕승종전에 “왕승종은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도 이기지 못하고 노종사를 모함한 姦計가 행해지자 비록 章表을 올려 겸손하고 공손하였으나 마음에 꺼리는 바가 없었다”(3880쪽)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원화 6년(811) 정월 오소양을 정식 회서절도사에 임명해 주었던 것인데, 헌종으로서는 섣불리 왕승종을 토벌하다가 두 할거 번진의 세습을 모두 용인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듬해인 원화 7년(812) 8월 이강이 헌종에게 한 말을 보면 “전 해에 성덕을 토벌하면서 사면에서 20만을 동원하고 두 신책병이 경사에서 달려가니 천하가 騷動하고 비용이 7백여 만 緡이 들었으나 결국 공을 이루지 못하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37] 라고 한다.

할거 번진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화 7년(812) 8월 위박의 전계안이 죽고 田興(즉 田弘正)이 번진을 이어받자 10월에 6주를 모두 들어 조정에 귀순하면서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38] 위박은 이전의 4왕 혹은 5왕을 형성한 축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귀순은 번진과 조정 간의 세력 균형이 근본에서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사도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제히 전홍정의 귀순을 철회시키려고 하였다. 즉 『구당서』 권141, 전홍정전에 의하면

> 전홍정이 나라에 귀순하자 幽·恆·鄆·蔡가 순망치한의 두려움을 느껴 자주 客을 보내 이간하고 다방면으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전홍정은 끝내 그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3850쪽).

36)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0쪽;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5년 11월 조, 433쪽.
37) 『자치통감』 권238, 원화 7년 8월 조, 7693쪽.
38)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7년 10월 조, 443쪽;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7년 10월 조, 212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0월 조, 7695~7696쪽.

라고 한다.[39] 여기서 幽·恆·鄆·蔡는 '5왕'을 형성하였던 유주·성덕·평로·회서를 가리킨다. 전홍전의 귀순에 따른 효과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 후 한동안 왕승종과 조정은 특별한 충돌 없이 지낸다.

Ⅲ. 헌종의 淮西 토벌 중 제2차 왕승종 토벌

원화 9년(814) 윤8월 회서절도사 오소양이 죽고 장남인 吳元濟가 번진을 계승하였다. 그러자 헌종은 회서를 토벌할 결심을 하였고[40] 이에 대해 오원제는 병사를 사방으로 보내 조정을 위협하였다. 즉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에 의하면

> 오원제는 명을 받지 못하자 병사를 모두 내어 사방으로 보내 舞陽[縣] 및 葉[縣]을 불태우고 襄城·陽翟을 약탈하였다. 당시 許·汝의 거주민은 모두 덤풀 사이로 도망쳐 숨었으며 약탈된 지역이 천여 리에 미쳤으므로 關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6005쪽).

라고 한다. 여기서 무양과 양적은 許州의 속현이고 섭과 양성은 汝州의 속현이다.

다음 달(9월) 헌종은 회서 주변의 번진 수장들을 재배치하고 10월 山

39) 『신당서』 권148, 전홍정전, "幽·恆·鄆·蔡大懼, 遣客鐫說鉤染, 弘正皆拒遣之"(4782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1월 조, 7697쪽.

40) 사실 헌종은 서천의 유벽을 토벌한 후 줄곧 회서를 취할 마음이 있었다. 즉 『신당서』 권146, 李吉甫傳, "自蜀平, 帝銳意欲取淮西"(4743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윤8월 조, "上自平蜀, 卽欲取淮西"(7705쪽)라고 한다.

南東道節度使 嚴綬를 회서에 대한 招撫使에 임명하여 토벌을 명한 후 이듬해(815) 정월 정식으로 오원제의 관작을 삭탈하고 宣武 등 16번진에게 토벌하게 하였다.[41]

당군의 공격이 전개되자 같은 해 4월 오원제는 왕승종과 이사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表를 올려 오원제의 죄를 사면하길 청하였으나 헌종은 따르지 않았다.[42] 그러자 5월 두 사람은 수하를 보내[43] 河南府 河陰縣에 설치된 轉運倉을 불태웠다. 즉 『구당서』 권15, 헌종본기, 원화 10년 4월 조에

> 도적이 河陰 轉運院을 불태웠는데, 무릇 錢帛 20만 貫匹과 米 2만 4천 800석, 倉室 55間을 소실시켰다. …… 人情이 놀라 요란해졌다(452쪽).

라고 하고,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조에서는 "신해(10일) 저녁에 도적 수십 인이 하음 전운원을 공격하여 10여 인을 살상하고 錢帛 30여 만 緡匹과 곡식 3만여 斛을 소각시키자 이에 人情이 두려워하였다"(7711~7712쪽)라고 한다. 처음에 河陰倉 방화를 기획한 것은 이사도였다고 보이지만,[44] 어떤 기록에서는 왕승종이 일으킨 것이라고도 한다. 즉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에 "4월 도적을 보내 하음창을 불태웠다"(3881쪽)라고 하고, 또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에도 "왕승종이 매우 원망하여 이사도와 함께 모의하여 惡少年 수십 무리를 보내 하음에 매복시켰다가 어두워지기를 틈 타 관리에게 화살을 쏘자 관리가 달아났다. 그리고 漕院에

41)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 3948~3949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정월 조, 7707쪽.
42)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 3949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조, 7711쪽.
43)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 "五(四?)月, [王]承宗·[李]師道遣盜燒河陰倉"(3949쪽).
44)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조, 7711쪽.

불을 질렀는데, …… 무릇 錢 30만 緡과 粟 수만 斛을 태워버렸다"(5957~5958쪽)라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연대하여 저지른 사건이라 하겠다.

같은 달(5월) 왕승종은 牙將 尹少卿을 조정으로 보내 오원제를 변호하게 하였는데, "윤소경이 中書에 이르러 재상 [武元衡]을 배견하여 일일이 논하면서 말투가 불손하였기 때문에 무원형이 화를 내고 꾸짖어 보내니 왕승종은 더욱 불손해졌다. 이로부터 이사도와 함께 온갖 간계를 꾸며 토벌을 저지하였다"[45] 라고 한다. 이후 왕승종은 무원형을 비난하는 表를 세 번이나 올렸는데, 헌종은 궁중에 보관하고 신하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46]

이어 6월 왕승종과 이사도가 보낸 자객이 재상을 암살하는 일을 벌어졌다. 즉 3일 미명 무원형이 입조하기 위해 靖安坊의 동문을 나섰을 때 도적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원형을 살해하고 또 通化坊으로 들어가 御史中丞·兼刑部侍郎 裴度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즉 『신당서』 권173, 배도전에 의하면

> 왕승종과 이사도가 회서를 공격하는 군대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의하여 도적을 京師에 매복시켜 권력을 행사하는 大臣을 찔렀는데, 재상 무원형을 해쳤고 이어 배도를 공격하여 칼을 세 번 휘둘렀으나 가죽신을 절단하고, 등을 공격하였으나 속옷을 찢었고 또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배도가 전모[氈]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 배도가 도랑에 떨어졌는데, 賊이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달아났다(5210쪽).

라고 한다. 당시 무원형과 배도는 회서 토벌을 이끌던 강경파였다. 논자들

45)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0~3881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5월 조, 7713쪽.

46)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7월 조, 454쪽;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8쪽.

은 배도를 파직시켜 두 번진의 반역을 진정시키자고 하였으나 황제는 화를 내며 말하길 “배도가 살아남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만약 파직시킨다면 賊의 계략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배도에게 의지하여 족히 세 적을 격파할 것”이라고 하였다.[47] 그리고 같은 달 24일 헌종은 배도를 재상에 임명하고 회서 토벌을 맡겼다.[48]

그 사이에 무원형을 암살한 범인이 잡혔는데, 곧 왕승종이 보낸 자객이었다. 즉『구당서』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6월 조에 의하면

> 鎭州節度使 왕승종이 도적을 보내 밤에 정안방에 매복시켜 재상 무원형을 찔러 죽였고, …… 이날 京城이 크게 놀라 京師에서부터 諸門에 이르기까지 衛兵을 늘리고, 재상의 導從에 金吾 騎士를 추가하여 출입할 때는 활시위를 당기고 칼을 뽑아 들었으며, 里門(즉 坊門)을 지나면서 꾸짖고 수색하여 심히 시끄러웠다. 공경으로 권력을 쥔 자는 가동을 무장시켜 수행하게 하였다. 무원형이 죽은 후 수일 동안 賊을 잡지 못했다. 병부시랑 許孟容이 알현을 청해 상주하여 말하길 “어찌 國相이 길모퉁이에서 횡사하였는데, 적을 잡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눈물을 흘리며 극언하니 황제가 분격하며 탄식하였다. 이에 京城·諸道에 조서를 내려 능히 적을 잡는 자에게 錢 1만 관과 5品官을 상으로 줄 것이며 감히 숨기는 경우에는 全家를 주살한다고 하였다. 이에 錢 2만 貫을 東·西市에 쌓아놓았다. 경성을 대대적으로 수색하면서 公卿·節將의 複壁·重轅까지 모두 수색하였다. 경술일 神策 將士인 王士則·王士平이 도적의 이름을 上言하고 아울러 왕승종이 시킨 것이라 말하니 이에 張晏 등 8인을 체포하여 주살하였다(453쪽).[49]

47) 『신당서』 권173, 배도전, 5210쪽.
48)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6월 조, 453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4쪽.
49) 정병준, 「《舊唐書》 憲宗本紀 下 역주」, 『신라사학보』 43, 2018, 236~237쪽.

라고 한다. 이에 같은 달 헌종은 그 동안 왕승종이 무원형을 비난하던 表를 신하들에게 보여주며 죄를 논하게 하자[50] 신하들이 토벌을 청하였다.[51] 그에 따라 오원제 토벌전이 진행되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헌종은 조서를 내려 왕승종의 죄악을 헤아리고 朝貢을 단절시켰다.[52] 사실상 왕승종에 대한 두 번째 토벌전이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는 전홍정의 귀순에 따른 형세 변화도 마땅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달 후인 8월에는 이사도에 의한 東都 전복 기도 사건이 일어났다. 즉『구당서』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8월 조에 의하면

> 정미일 淄靑節度使 이사도가 몰래 嵩山의 승려 圓淨과 謀反하여 勇士 수백 인을 동도의 進奏院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洛城에 병사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궁전을 불태우고 약탈을 자행하려고 하였다. 小將 楊進과 李再興이 변고를 알리자 留守 呂元膺이 병사를 내어 포위하였다. 賊이 포위를 뚫고 나와 嵩嶽으로 들어갔으나 山棚(즉 산속의 수렵민)[53] 이 그들을 모두 잡았다. 그 우두머리를 힐문하니 승려 圓淨이 주모자였다. 승려가 형벌에 임해 탄식하며 말하길 "나의 일을 그르쳐서 낙성을 유혈로 만들지 못했구나!"라고 하였다(454쪽).

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都城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54]

---

50)『자치통감』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4쪽.

51)『신당서』권211, 왕승종전, 5958쪽.

52)『당대조령집』권119, 討伐上,「王承宗絶朝貢敕」, 630~631쪽;『구당서』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7월 조, 453~454쪽;『신당서』권211, 왕승종전, 5958쪽;『자치통감』권239, 원화 10년 7월 조, 7715쪽.

53) 日野開三郎,「唐代の戰亂と山棚」,『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1, 三一書房, 1980; 新見などか,「唐後半期における平盧節度使と海商·山地狩獵民の活動」,『東洋學報』95-1, 2013, 71~72쪽 등 참조.

동도 전복 기도 사건은 이사도가 거의 단독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왕승종이 함께 행동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즉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을 보면 간략하게 "또 洛陽에 무기를 숨겨 反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5958쪽)라고 한다. 하지만 관련 기록은 거의 모두 이사도가 일으킨 것으로 적고 있다. 이 사건은 이사도가 왕승종과 공조하면서도 거의 단독으로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달(8월) 동도유수 여원응이 해당 사건을 수습하면서 무원형 암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왕승종의 자객이 무원형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기획한 것은 이사도였다는 것이다. 즉 신당서』 권152, 무원형전에 의하면

> 달을 넘겨 東都防禦使 여원응이 淄青 留邸의 賊인 門察·訾嘉珍을 잡았는데, 스스로 말하길 먼저 무원형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였지만, 때마침 [성덕의] 장안이 먼저 실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어 이사도에게 알리고 그 상을 훔쳤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비밀리에 주살하였다(4835쪽).

라고 한다. 하지만 헌종은 왕승종에 대한 토벌이 시작된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55] 이사도가 무원형 암살의 기획자라는 것은 훗날 그가 패망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밝혀진다.[56]

---

54)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8월 조, "李師道置留後院於東都, 本道人雜沓往來, 吏不敢結. …… 師道潛內兵於院中, 至數十百人, 謀焚宮闕, 縱兵殺掠, …… 會門子健兒有小過, 被笞責之, 遂使兄弟一人告河南府. …… 是時都城震駭"(7715~7716쪽).

55)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8월 조, "有訾嘉珍·門察者, 潛部分以屬圓淨, 圓淨以師道錢千萬, 陽爲治佛光寺, …… 元膺鞫訾嘉珍·門察, 始知殺武元衡者乃師道也, 元膺密以聞, 以檻車送二人詣京師. 上業已討王承宗, 不復窮治. …… 而方討吳元濟, 絶王承宗 , 故未暇治師道也"(7716~7717쪽).

이후에도 왕승종과 이사도의 교란 행위는 계속되었다.[57] 즉 같은 해(815) 10월 두 사람이 부하를 보내 하남부 河淸縣의 柏崖倉을 불태웠고,[58] 11월 襄州의 절에 보관 중이던 군량과 말먹이 건초를 불태우자 조정에서는 경성에 쌓아둔 말먹이 꼴을 사방 교외로 옮겨 화재에 대비하였다. 또 같은 달 11일 도적이 高祖 獻陵의 寢宮 등을 불태웠고,[59] 이듬해(816) 정월에는 肅宗 建陵의 門戟 47枝를 절단하였다.[60]

이어 이듬해(816) 정월 헌종이 정식으로 왕승종을 토벌하는 조서를 내려 왕승종의 관작을 삭탈하고 河東·義武·橫海·魏博·昭儀 6개 번진에게 공격하게 하였다.[61] 그때 재상 韋貫之가 나서 할거 번진들이 연대하여 일으킨 '사왕의 난'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회서를 평정한 다음 성덕을 토벌할 것을 누차 청하였으나 헌종이 듣지 않았다.[62] 하지만 왕승종

56) 『자치통감』 권211, 원화 14년 2월 및 7월 조, 7767쪽, 7769쪽. 한편 王夫之는 여전히 이사도가 무원형 암살 등을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았다. 즉 『讀通鑑論』(『船山全書』 10, 岳麓書社, 1988), 唐憲宗, 「環攻淮蔡四年始克」, "李師道獨以狗盜之姦, 刺宰相, 焚陵邑, 脅朝廷以招撫, …… 師道遣三數匹夫京邸, 殺宰相, 燬陵寢, 焚屯聚, 挾火懷刃"(95965~966쪽).

57)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是時, 承宗·師道之盜, 所在竊發, 焚襄州佛寺, 斬建陵門戟, 燒獻陵寢宮, 欲伏甲屠洛陽. 憲宗赫怒, 命田弘正出師臨其境, 幷鄰道六節度之衆討之"(3881쪽).

5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1월 조, 7719쪽.

59)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11월 조, 455쪽;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10년 11월 조, 215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1월 조, 7719쪽.

60)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신당서』 권213, 이사도전, "及窮治, 嘉珍·察乃害武元衡者. 鹽鐵使王播又得嘉珍所藏弓材五千, 幷斷建陵戟四十七"(5993쪽).

61) 『당대조령집』 권119, 討伐上, 「討鎭州王承宗德音」, 631쪽;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62) 『구당서』 권158, 위관지전, 4174쪽; 『신당서』 권169, 위관지전, 5154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制削王承宗官爵, 命河東·幽州·義武·橫海·魏博·昭儀六道進討. 韋貫之屢請先取吳元濟, 後討承宗曰, '陛下不見建中之事乎? 始於討魏及齊, 而蔡·燕·趙皆應, 卒致朱泚之亂, 由德宗不能忍數年之憤

토벌전은 이번에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즉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817) 5월 조에 의하면 "여섯 번진이 왕승종을 토벌할 때 병사가 10여 만이었는데, 둘러싼 것이 수천 리이고 統帥가 없었다.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期約하여 통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功이 없었고 천 리나 식량을 운반하면서 소·당나귀가 죽은 것이 10의 4~5였다"(7734쪽)라고 한다. 전흥정이 조정에 가담하였다고 해도 할거 번진의 세력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회서 방면에서도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63]

같은 달(원화 12년 5월) 재상 이봉길과 많은 신하들이 성덕 토벌전을 일시 중지하고 회서에 집중할 것을 건의하자 결국 왕승종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였다.[64] 그 무렵부터 회서 토벌전은 형세가 바뀌기 시작하여[65] 6월 오원제가 표를 올려 귀순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다.[66]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마침내 당군이 蔡州城을 함락시켜 오원제를 사로잡았다. 왕승종 토벌을 그만두고 회서에 역량을 집중시킨 것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邑, 欲太平之功速成故也', 上不聽"(7721쪽). 李懷生, 「試論唐憲宗削藩戰爭的策略失誤」, 『晉陽學刊』 1991-3, 43~44쪽; 秦中亮·陳勇, 「從兩次興兵成德看元和政治規範的形成」, 131쪽 참조.

63)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6, 2022, 218~219쪽.

6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5월 조, 7734쪽;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5월 조, "丙子, 詔權罷河北行營, 專討淮蔡"(459쪽).

65) 李懷生, 「試論唐憲宗削藩戰爭的策略失誤」, 42~43쪽에서는 그간 회서 토벌의 전략상 실책들을 나열하고 있다.

66)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6월 조, "壬戌, 賊吳元濟上表, 請束身歸朝. 時連破三柵, 賊勢迫蹙, 實欲歸朝, 而制於左右, 故不果行"(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6월 조, 7736쪽.

Ⅳ. 平盧 李師道의 패망과 왕승종의 태도

원화 12년(817) 10월 오원제가 주살되자 반역 번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듬해(818) 정월 이사도가 표를 올려 조정의 명을 따르길 청하며 沂·密·海 3주를 할양하고 장자를 보내 入侍·宿衛시키길 청하자 조서를 내려 허락하고 左常侍 李遜을 鄆州로 보내 위로하였다.[67] 또 3월에는 橫海節度使 程權이 스스로 滄景을 세습하여 하북3진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불안하여 표를 올려 일족이 입조하길 청하자 헌종이 허락하였다.[68]

왕승종도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하여 전홍정을 통해 조정에 귀순의 뜻을 전하였다. 즉『자치통감』권240, 원화 13년 3월 조에 의하면

> 배도가 회서에 있을 때 布衣 柏耆가 책략을 가지고 [배도의 막료였던] 韓愈에게 말하길 "오원제가 사로잡혔으므로 왕승종이 놀라 두려워할 것이니 원건대 丞相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유세하면 병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유가 배도에게 아뢰자 서신을 주어 보냈다. 왕승종이 두려워하며 전홍정에게 애달프게 도움을 청해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덕·체 2주를 바치고 租稅를 보내고 官吏를 청하겠다고 하였다. 전홍정이 그를 위해 주청하니 황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전홍정의 表가 계속 이르자 황제가 전홍정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이에 허락하였다. 4월 초하루에 위박이 사신을 파견하여 왕승종의 아들 知感과 知信 및 덕·체 2주의 圖印을 경사로 보냈다(7748~7749쪽).

67)『구당서』권124, 이사도전, 3539쪽;『자치통감』권240, 원화 13년 정월 조, 7747쪽;『구당서』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3년 정월 조, 462쪽.
68)『자치통감』권240, 원화 13년 3월 조, 7748쪽.

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 조정에서는 그 귀순의 진정성을 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唐會要』 권58, 尙書省諸司中, 左右丞, 원화 13년 조에 의하면

> 치청절도사 이사도가 평정되자 鎭州의 왕승종이 두려워서 章을 올려 덕·체 2주를 할양하여 스스로 속죄하고 또 두 아들을 입시시키길 청하였다. 헌종이 사신을 선발하여 宣諭하게 하였는데, 尙書右丞 崔從이 뽑혔다. 논자들이 왕승종의 죄악이 가득하고 매번 간사하고 음흉한 것이 많았으므로 두 아들을 입조시키는 것도 필시 진정한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자못 우려하였다. 최종이 魏州에 이르자 절도사 전홍정은 가는 길이 寇의 경역을 경유한다고 하여 500기로 호위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이 사양하고 童奴 십수 기를 데리고 갔다. 진주에 이르러 鞠場에서 칙서를 선포하자 三軍이 대거 모였다. 이에 逆順을 일러주니 말의 감정이 慷慨하여 軍士들이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승종이 눈물을 흘리며 예를 갖추는 것이 심히 공손하였다. 마침내 덕·체의 호구와 符節을 가지고 돌아갔다(上海古籍出版社, 1172~1273쪽).[69]

라고 한다. 그리고 4월 조서를 내려 왕승종의 관작을 회복시켰는데, 즉 "왕승종은 과연 깊이 잘못을 뉘우쳐 충성을 나타내어 두 아들을 멀리 보내고 表章을 올리며 圖印을 봉인해 上聞하여 덕·체의 名部를 바치고, 곳간을

69) 『冊府元龜』 권653, 奉使部2, 稱旨, 崔從 조, "爲尙書左丞. 元和十三年, 王承宗再奉朝貢表, 遣二子入侍, 請納德棣二州, 詔從宣撫, 且受地. 議者以承宗誠詐未可知, 又入侍者非承宗子, 人皆憂之. 從次魏州, 田弘正以路師道境, 欲以五百騎送之, 從不聽, 以童僕十數騎徑至鎭州. 先令大集軍士於毬場, 宣諭恩敕, 詞旨慷慨, 衆心感動, 承宗與軍士皆號泣俯拜. 及饗宴, 每從容與承宗諭以大節, 承宗爲禮益恭. 及還, 遂按二郡之籍收其戶口兵儲以復命. 帝臨軒勞悅久之(中華書局, 7827쪽).

열어 곡식을 보내고 아울러 소금생산을 같게 하여 소금을 상공하고, 토지는 職方의 지휘를 받길 원하고 재물은 관련 관아에 귀속되기를 청하였다. …… 왕승종을 이전과 같이 銀靑光祿大夫·檢校吏部尙書·鎭州大都督府長史·御史大夫·充成德軍節度·鎭冀深趙觀察等使로 삼는다"[70] 라고 하여 관작을 회복시켜 주고[71] 아울러 華州刺史 程權을 德州刺史·橫海軍節度·德棣滄景等州觀察使에 임명하였다.[72] 그러자 왕승종은 소복을 입고 명을 받들었다.[73] 앞선 원화 4년(809) 9월 헌종이 왕승종에게 처분한 조치가 이제야 실현된 것이었다. 이어 4월에는 幽州節度使 劉總이 조정에 귀순할 뜻을 보였는데,[74] 이로써 할거 번진은 일단 모두 헌종에게 굴복하게 되었다.[75]

하지만 같은 해(818) 4월 이사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76] 헌종은 마침내 이사도 토벌을 결심하고 6월 토벌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게 하고 오원제 토벌에 공을 세운 주요 장수들을 평로 주변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7월 이사도의 관작을 삭탈하고 宣武·魏博·義成·武寧·橫海 등의 번진들에게 토벌을 명하였다.[77]

이때 왕승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구당서』 권142, 王承元傳에

70)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2쪽; 『당대조령집』 권651, 「雪王承宗詔」, 651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조, "詔洗雪王承宗及成德將士, 復其官爵"(7749~7750쪽).

71)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조, 7749~7750쪽.

72)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3년 4월 조, 463쪽.

73)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2쪽.

7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조, "… 遂專意歸朝廷"(7749쪽).

75) 『能改齋漫錄』 권5, 辨誤3, 裴度聖相, "葛方立『韻語陽秋』云, '裴度在朝, 憲宗委任不疑, 使破三賊. 已而吳元濟授首, 王承宗割二州, 遣子入侍, 李師道被擒. 兩河諸侯, 忠者懷, 强者畏. 克融·庭湊, 皆不敢桀傲. …'"(上海古籍出版社, 131쪽).

76) 정병준, 「李師道 藩鎭의 滅亡에서 張保皐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2, 2003, 196~197쪽.

77)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6월 및 7월 조, 7750쪽.

보이는 다음 기사이다. 즉

> [왕승원이] 왕승종에게 2천 기병으로 王師가 이사도를 토벌하는 것을 돕게 하였으나 왕승종이 그 말을 채용하지 않았다(3883쪽).

라고 하여 헌종이 이사도를 토벌할 때 왕승종의 동생인 왕승원이 토벌전을 돕게 하였으나 왕승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반역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화 14년(819) 2월 이사도가 패망하자 왕승종은 더 이상 반역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듬해(820) 정월 "법을 받드는 것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고 관하 4주의 각 주에 錄事參軍 1員, 判司 3員, 매 縣에 令 1원, 主簿 1원을 두고 吏의 補授는 모두 朝旨를 듣길 청하였다"[78] 라고 한다.

원화 15년(820) 정월 헌종이 죽고[79] 穆宗이 즉위한 후인 같은 해 10월 왕승종이 사망하였다.[80] 『신당서』 권212, 劉總傳에 의하면 "오원제와 이사도가 평정되자 왕승종이 근심으로 죽었다"(5975쪽)라고 한다. 그러자 軍中에서 왕승원을 유후로 추대하였으나 왕승원은 감히 번진을 세습하려고 하지 않았다.[81] 목종은 왕승종을 義成軍節度使로 삼았다.[82] 이로써 성덕은 한때 조정에 완전히 복종한 번진이 되었다.

---

78)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3882쪽; 『당회요』 권69, 州府及縣加減官, 원화 15년 정월 조, "鎭州觀察使王承宗奏'鎭冀深趙等四州, 請每州置錄事參軍一員·判司三員, 每縣置令錄事一員·主簿一員·尉一員', 又從之"(1453쪽).

79)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5년 정월 조, 472쪽; 『자치통감』 권241, 원화 15년 정월 조, 7777쪽.

80)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원화 15년 10월 조, 481쪽; 『자치통감』 권241, 원화 15년 10월 조, 7782쪽.

81)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9쪽.

82) 『신당서』 권148, 왕승원전, 4787쪽.

V. 맺음말

원화 4년(809) 3월 성덕절도사 王士眞이 죽고 장남 왕승종이 번진을 계승하였다. 헌종은 고심 끝에 9월 왕승종을 성덕절도사에 임명해 주는 대신 덕·체 2주를 분리시켜 별도의 번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왕승종은 이에 반발하여 새 번진의 절도사로 임명된 설창조를 잡아 구금하였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왕승종 토벌을 반대하고 이강 등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보이는 회서를 먼저 취하자고 하였으나 10월 헌종은 왕승종 토벌을 명하였다. 그동안 새로 반란을 일으킨 번진들을 쉽게 평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때마침 11월 회서절도사 오소성이 죽고 오소양이 뒤를 이었으나 겨를이 없어 계승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성덕에 대한 토벌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결국 이듬해인 원화 5년(810) 7월 토벌을 중지하였다. 할거 번진은 아직 건재하였던 것이다. 다만 원화 7년(812) 8월 위박을 이어받은 전홍정이 10월 조정에 귀순하면서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원화 9년(814) 윤8월 회서절도사 오소양이 죽고 장자 오원제가 회서를 계승하자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815) 정월 순차적으로 헌종이 토벌을 명하였다. 오원제가 왕승종과 평로의 이사도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두 사람은 회서 토벌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다. 즉 같은 해(815) 4월 河陰 轉運倉을 불태우고 6월에는 회서 토벌을 총괄하던 재상 무원형을 암살하였다. 곧이어 암살범이 성덕의 부하로 밝혀지자 헌종은 회서와 성덕을 동시에 토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같은 해 7월 왕승종 토벌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 중인 8월 이사도가 동도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수습 과정에서 앞서 재상 암살을 기획한 것은 이사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헌종은 이듬해인 원화 11년(816) 정월 6道 번진에게 왕승종을 공격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전홍정의 귀순에 따른 형세 변화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왕승종 토벌은 이번에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이듬해(817) 5월 군대를 철수하였다. 전홍정이 조정에 가담하였다고는 해도 할거 번진의 위세는 아직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오원제 토벌전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여 마침내 같은 해 10월 평정하였다.

오원제의 패망은 번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반역 번진들이 차례로 조정에 귀순하였고 왕승종도 이듬해인 원화 13년(818) 3월 귀순하였다. 하지만 4월 이사도가 태도를 바꾸면서 7월부터 그에 대한 토벌전이 벌어지자 왕승종은 상황을 관망하였다. 이듬해(819) 2월 이사도가 패망한 후 왕승종은 완전 굴복하였고 얼마 후 사망하였다. 지금까지 헌종이 번진을 개혁하는 과정에 상당한 실패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이는 할거 번진이 예상보다 여전히 강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2.11.05. 투고 / 2022.12.05. 심사완료 / 2022.12.08. 게재확정)

[Abstract]

Tang Xianzong's Reform of the Provinces and the Chengde Military Commissioner Wang Chengzong

Cheong, Byung-jun

Tang Xianzong succeeded in the Reform of the Provinces, but made some mistakes. His two attacks on the Chengde Military Commissioner Wang Chengzong was the best case. At that time, the Chengde Province was powerful, so Xianzong's attacks was all failed. If Xianzong made persistent military aggression against the Chengde Province, the Reform of the Provinces could have fallen through. But Xianzong recognized the attack on the Chengde Province as error, and stopped the attack. It was a very right decision. His decision led the success in attack on the Huaixi Province which was proceeded before the second attack on the Chengde Province. Conversion of strategy overcome the risk. As the Huaixi Province was destroyed, Autonomous Provinces were surrendered in turn, and Wang Chengzong yielded under pressure inevitably.

☐ Keyword

Tang Xianzon, Chengde, Wang Chengzong, Wu Yuanji, Li Shidao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모두 中華書局標點本).

『唐會要』, 上海古籍出版社, 1991.

『唐大詔令集』, 商務印書館, 1959.

『冊府元龜』, 中華書局, 1960.

『太平廣記』, 中華書局, 1961.

『能改齋漫錄』, 上海古籍出版社, 1979.

(明) 王夫之, 『讀通鑑論』(『船山全書』 10, 岳麓書社, 1988).

吳廷燮 撰, 『唐方鎭年表』, 中華書局, 1980.

2. 연구논저

정병준, 「唐 憲宗 초기 淮西 藩鎭의 地域割據 –吳少陽의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2021.

정병준, 「韓愈의 '平淮西碑' 검토」, 『중국사연구』 139, 2022.

정병준, 「唐 憲宗의 淮西 討平과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66, 2022.

王紅星, 「唐代山棚與明淸山棚的比較研究」, 『平頂山學院學報』 2016–1.

李懷生, 「試論唐憲宗削藩戰爭的策略失誤」, 『晉陽學刊』 1991–3.

秦中亮·陳勇, 「從兩次興兵成德看元和政治規範的形成」, 『厦文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4.

新見などか, 「唐後半期における平盧節度使と海商·山地狩獵民の活動」, 『東洋學報』 95–1, 2013.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 헌종과 번진」,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9.